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재훈, 김경운*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condary Anger Thoughts in Married Wome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ae Hoon Choi, Kyeong Uoon Kim*
Department of Nursing, Seoj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30대 이상 기혼여성 215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자존감 척도를 요인분석 후 수정하여 조사하고 다중회귀와 3단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은 타인 비난/보복, 무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등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과 정적(+), 매개변인인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이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 타인 비난/보복($\beta=.722$), 무력감($\beta=.748$),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beta=.583$)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beta=-.583$)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은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들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과민/취약성의 특성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이며, 과민/취약성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성을 통해 이차적 분노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직업이나 생활환경 등 배경 요인에 따른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변화양상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condary anger thoughts in married wo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215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older, the covert narcissism scale, secondary anger thoughts scale, and self-esteem scale were modified after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d three-step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timidity/lack of confid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condary anger thought sub-factors such as blame/revenge, helplessness, and anger control/constructive coping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Second, among the covert narcissism sub-factors,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blame/revenge of others ($\beta=.722$), helplessness($\beta=.748$),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beta=.583$), and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on self-esteem($\beta=-.583$).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among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and the influence of the sub-factors of secondary anger thought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vert narcissism, namely,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are the main factors that act on secondary anger thoughts, and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can affect secondary anger thoughts through self-esteem and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t. This study targets the covert narcissism of married women in general. Therefore,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characteristics of covert narcissis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changes in married women according to background factors such as occupation and living environment.

Keywords : Covert Narcissism, Secondary Anger Thoughts, Self-esteem, Mediating Effect, Married Women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Uoon Kim(Seojeong Univ.)

email: kimku@seojeong.ac.kr

Received May 6, 2022

Revised June 16,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1. 서론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기혼여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으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이 분노 경험이 일반인보다 횟수가 잦고 심해 생활의 장애가 될 정도라면 병리적 증상으로 의심해보아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분노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분노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가 있고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면 내현적 자기애의 어떠한 요소가 분노를 자극하는지 또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분노 경험은 인지와 정서, 생리 영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그중에서 인지는 분노의 발생과 지속 과정에 모두 간여하는 필수 요인이다[1]. 따라서 여러 인지 이론이 분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Lazarus[2]는 인간이 분노를 경험할 때 일차평가와 이차평가로 순차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일차평가는 개인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처 행동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평가이며, 이차평가는 분노상황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타인에게 있는지를 결정한다. Deffenbacher와 McKay[1]는 분노 경험을 분노 발생의 동기, 분노 이전의 상태, 평가이 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규정하고 평가과정을 Lazarus[2]와 마찬가지로 일차와 이차로 구분한다. 일차평가에서는 분노의 근본 동기를 찾고 이차평가는 이에 따른 대처자원, 인내력, 분노 경험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반면, Beck[3]은 분노 경험이 사건 자체보다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분노를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분노 과정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반복적으로 개입된다. 이러한 인지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노 경험은 분노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와 해석이 중요한 과정이며 순차적인 단계를 거침을 알 수 있다. 분노 경험이 일차원적인 반응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단계의 평가과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Seo[4]는 이러한 인지론적 관점을 기초로 분노사고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노가 촉발되는 과정에서 시간상 이차적 분노사고보다 선행하며 주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내포한다. 이에 비해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로 일어나는 불쾌감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이나 행동, 심리상태 등 대처 양상을 판단한다. 대처 양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시간상으로 일차적 분노사고보

다 분노 행동 유발에 더 근접한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일차적 분노사고는 개인의 주관에 개입됨으로써 사고 과정에서 오류 혹은 왜곡의 여지를 확인하여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차적 분노사고는 상황대처나 문제해결의 유용성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차이를 보인다[5].

기혼여성의 분노 경험은 그 주된 요인이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정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내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갈등, 외적 요인으로는 결혼생활과 관련한 사회 전통적 가치관 또는 문화를 들 수 있다[6]. 가족관계 갈등은 주로 남편, 자녀, 시부모와의 갈등이며, 사회 전통적인 가치관은 가족중심주의, 가정 내 고정화된 여성 역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배경 요인으로 하는 여성의 분노 경험은 이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상황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Narcissism)는 일반적으로 문에 용어로 인식되다 19세기 후반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이후 성격심리학의 한 개념으로 수용된다. 현대 정신의학(DSM-III)에서는 자기애를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자기애는 그 발현양상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타인이 인정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강한 성향은 공통적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다[7,8].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비판에 무신경한 반응을 보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회피적이고 과민한 자기애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매사에 소심하며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9,10].

내현적 자기애의 구성 요인을 통해 나타나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들은 자존감과 상관성을 보여준다. 자존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평가라 할 수 있다[11].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과대 자기 환상은 공허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통해 자존감 저하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13]. 이에 반해 자존감이 자기애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조건부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이 발견되는데 이는 열등감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아닌 허위 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15]. 자존감은 분노사고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

람일수록 분노의 횡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6]. 그러나 조건부 자존감과 같이 불안정한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보다 분노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를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요인이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영향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분노사고에 영향을 주는 내현적 자기애의 수정과 자존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노사고 과정 중 이차적 분노사고와 기혼여성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차적 분노사고를 선택한 것은 분노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비난 또는 보복을 가할지, 건설적으로 대처해야 할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공공 또는 민간 어린이집 5곳의 어머니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2개의 여성단체 회원 등 기혼여성 22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문 조사를 하였다. 대상 선정에는 연령대를 고려, 사전에 해당 기관과 단체의 연령분포를 파악하여 가능한 고른 분포가 이뤄지도록 반영하였다. 주 간격으로 젊은 층 기혼여성은 어린이집에서 1차, 중년여성은 여성단체에서 2차에 걸쳐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다수의 표기 누락이 발견되거나 불성실 응답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1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1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내현적 자기애 측정

Kang과 Chung[7]이 Akhtar와 Thomson[18]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n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목표 불안정(9문항),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9문항), 과민/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5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별로 목표 불안정 .9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82, 착취/자기중심 .78,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 부족 .80이다. 본 연구에서는 .72, .81, .81, .90, .73으로 나타났다.

2.2.2 이차적 분노사고

Seo와 Kwon[5]은 분노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Beck[3], Deffenbacher와 McKay[1], Lazarus[2]의 인지 이론을 토대로 일차적,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분노사고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타인 비난/보복(11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8문항) 3가지 하위요인 총 3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5].

이 척도의 3개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타인 비난/보복 .96, 무력감 .78,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75이다. 본 연구에서는 .97, .93, .91로 나타났다.

2.2.3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를 Jon[11]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내용 5문항, 부정적 내용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를 5점 Likert식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SES 내적 합치도(α)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와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규분포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 자존감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

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20]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소벨테스트(Sobel-test)로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30대 이상 기혼여성 215명이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이 189명으로 87.9%의 비율을 보이고 이혼과 별거 비율도 각각 4.2%와 5.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15

	Spec.	Frequency	Percentage
Age	30s	63	29.3
	40s	63	29.3
	50s	69	32.1
	60s and older	20	9.3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5	2.3
	High school graduation	52	24.2
	College graduation	135	62.8
	Graduate school or higher	23	10.7
Marital status	Married	189	87.9
	Divorce	9	4.2
	Separation	11	5.1
	Bereavement	6	2.8
Number of children	0	20	9.3
	1	59	27.4
	2	114	53.0
	3	21	9.8
	4≤	1	0.5
Number of families	1	4	1.9
	2	19	8.8
	3	61	28.4
	4	104	48.4
	5≤	27	12.6
Companion family	Single	16	7.4
	Couple	31	14.4
	Couple with children	154	71.6
	Parents and couple with children	14	6.5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5 million	12	5.6
	Less than 1.5~2.5 million	25	11.6
	Less than 2.5~3.5 million	42	19.5
	Less than 3.5~4.5 million	43	20.0
	Less than 4.5~5.5 million	31	14.4
	Less than 5.5~6.5 million	37	17.2
	Less than 6.5~7.5 million	10	4.7
Job	More than 7.5 million won	15	7.0
	Housewife/jobless	65	30.2
	Technician	2	0.9
	Service	31	14.4
	Office	24	11.2
	Production worker	6	2.8
	Profession	68	31.6
	Public official	18	8.4
	Retirement	1	0.5

4.2 정규분포성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각 하위요인과 자존감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of study variables

Variable	Sub-factor	Max.	Min.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Con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1.00	4.22	2.74	0.58	0.08	-0.31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1.67	4.11	2.89	0.55	-0.00	-0.84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00	3.67	2.28	0.56	0.40	-0.01
Secondary anger thoughts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1.00	4.20	2.75	0.72	0.12	-0.67
	Timidity/ Lack of confidence	1.25	4.00	2.88	0.55	-0.23	-0.36
Self-esteem	Others blame/Revenge	1.00	4.32	2.24	0.84	0.36	-0.96
	Helplessness	1.00	4.57	2.28	0.94	0.56	-0.57
Self-esteem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1.00	4.00	2.55	0.80	0.27	-0.94
	Self-esteem	1.30	5.00	3.19	0.79	0.05	-0.55

왜도의 표준오차는 0.166, 첨도의 표준오차는 0.330으로 각 요인의 왜도와 첨도 통계량/표준오차의 값이 ±2를 벗어나지 않아 각 요인의 측정값이 정규분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4.3 요인분석

Kang과 Chung[7]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 45문항을 대상으로 SPSS Ver. 2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고유치(Eigenvalues)가 1.00 이상인 5개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목표 불안정 11.535, 인정욕구 3.039, 착취/자기중심 1.833, 과민/취약성 1.317, 소심/자신감 1.158로 나타났다. verimax 회전 방법으로 요인계수행렬을 구하였으며, 요인계수가 .50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였다. 다만, 소심/자신감 요인은 3문항만 추출되어 해석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인계수 4.00 이상 문항을 포함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별로 목표 불안정 6문항, 인정욕구 4문항, 착취/자기중심 5문항, 과민/취약성 4문항, 소심/자신감 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62.94%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내현적 자기애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covert narcissism

Question number	component				
	Goal instability	Desire for recognition	Exploitation/ Self-center edness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Timidity/ Lack of confidence
42	.800	.053	.164	.356	.115
23	.758	.147	.161	.149	.175
44	.745	.129	.284	.228	.084
5	.702	.273	.036	.013	.151
15	.694	.228	.200	.101	.269
30	.621	.023	.384	.163	.130
2	.106	.765	-.075	.058	.164
7	.047	.716	.048	.059	-.017
17	.391	.598	-.028	.345	.072
24	.426	.588	.220	.129	-.049
16	.257	.066	.733	-.003	.068
45	.198	-.198	.729	.083	-.125
27	.308	.181	.692	.013	-.220
11	.169	.074	.669	-.062	.325
35	-.217	-.004	.595	.424	-.197
3	.230	.189	-.023	.729	.039
8	.295	.121	-.014	.658	-.119
26	.436	.139	-.014	.621	.271
36	.490	.146	.203	.563	.242
34	-.204	-.027	.120	-.046	.707
28	.309	.092	.176	.234	.581
32	.338	.371	.186	.308	.577
1	.011	.484	-.062	.336	.487
Eigenvalues	11.535	3.039	1.833	1.317	1.158
Cumulative%	38.449	48.580	54.689	59.077	62.938

이차적 분노사고는 Seo와 Kwon[5]의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34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00을 기준으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타인 비난/보복 8.707, 무력감 7.646,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7.324로,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69.64%를 설명한다. 요인계수 5.00 이하 항목을 제거한 요인별 항목은 타인 비난/보복 9문항, 무력감 5문항,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actor analysis of secondary anger thought component

Question number	component		
	Others blame/ Revenge	Helplessness	Anger control/ Constructive response
30	.802	.193	.132
31	.790	.335	.156
33	.786	.316	.283
34	.779	.307	.279
6	.689	.188	.441
29	.680	.394	.262
23	.619	.446	.440
13	.597	.335	.415
2	.585	-.018	.389
9	.207	.756	.404
7	.364	.731	.395
25	.324	.711	.435
20	.427	.602	.437
22	.339	.588	.402
27	.486	.037	.731
32	.148	.306	.645
18	.095	.180	.627
12	.258	.435	.583
11	.319	.435	.548
Eigenvalues	8.707	7.646	7.324
Cumulative%	25.608	48.098	69.640

4.4 상관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간 상관계수(r)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과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성은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1	2	3	4	5	6	7	8
2	.515**							
3	.659**	.506**						
4	.626**	.576**	.435**					
5	.721**	.699**	.595**	.813**				
6	.560**	.556**	.487**	.553**	.733**			
7	.586**	.524**	.401**	.651**	.774**	.873**		
8	.523**	.551**	.283**	.619**	.699**	.794**	.859**	
9	-.582**	-.301**	-.336**	-.616**	-.657**	-.618**	-.764**	-.598**

** $p < .01$

1=Goal instability, 2=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3=Exploitation/Self-centeredness, 4=Timidity/ Lack of confidence, 5=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6=Others blame/Revenge, 7=Helplessness, 8=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9=Self-esteem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은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인 무력감($r=.774, p<.01$), 타인 비난 및 보복($r=.733, p<.01$),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r=.699, p<.01$)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과민/취약성은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타인 비난 및 보복은 이에 대한 적대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력감은 분노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에의 취약성에 따른 순응적인 반응으로 판단된다.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과민/취약성이 분노 상황에서 타인 비난 및 보복이나 무력감 등 적대적이거나 순응적인 반응과 달리 합리적인 대처도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무력감은 분노상황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무기력해 하는 반응으로 자존감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764, p<.01$)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5]와도 일치하며 무력감이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이외에 자존감의 저하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4.5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 분석

4.5.1 타인 비난 및 보복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및 보복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값이 .742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others blame and reveng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215	.273		-.786	.433		
Goal instability	.085	.112	.057	.760	.448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121	.101	.079	1.204	.230	.497	2.013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054	.097	.036	.558	.577	.507	1.972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845	.119	.722	7.090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200	.123	-.132	-1.620	.107	.326	3.070

R=.742, R²=.550, Modified R²=.539, Dubin-Watson=1.661

결정계수 R²=.550으로 타인 비난 및 보복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 전체의 설명력은 55%였다. Dubin-Watson 계수는 1.661로 정상분포인 2에 가까워 잔차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공차 한계도 모든 요인이 0.2를 초과해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과민/취약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정적 영향($t=7.090, p<.001$)이 확인되었고 영향력(β)은 .722로 나타났다.

4.5.2 무력감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무력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R값이 .781로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Helplessness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552	.283		-1.950	.053		
Goal instability	.200	.116	.120	1.733	.085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023	.104	-.013	-.219	.827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217	.101	-.131	-2.159	.032*	.507	1.972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975	.124	.748	7.895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055	.128	.032	.426	.670	.326	3.070

R=.781, R²=.611, Modified R²=.601, Dubin-Watson=1.617

무력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61.1%로 비교적 높으며 Dubin-Watson 계수도 1.617을 가리켜 회귀모형에 적합한 분포를 보인다. 무력감에 대한 영향력은 착취/자기중심($\beta=-.131, p<.05$)과 과민/취약성($\beta=.748, p<.001$)에 확인되었으며, 착취/자기중심은 부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무력감은 낮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으나 착취/자기중심은 특권의식이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의 역반응 결과라고 생각된다.

4.5.3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R값이 .738로 변인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Tolerance	VIF
Constant	.034	.262		.129	.898		
Goal instability	.232	.107	.163	2.172	.031*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244	.097	.167	2.521	.012*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400	.093	-.281	-4.286	.000***	.507	1.972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628	.114	.583	5.489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124	.118	.086	1.049	.296	.326	3.070

R=.738, R²=.544, Modified R²=.533, Dubin-Watson=1.615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54.4%며 Dubin-Watson 계수도 1.615로 정상분포에 근접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영향력은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 순은 과민/취약성($\beta=.583, p<.001$), 착취/자기중심($\beta=-.281, p<.001$), 인정욕구/거대자기($\beta=.167, p<.05$), 목표 불안정($\beta=.163, p<.05$)이다. 착취/자기중심은 유일하게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착취/자기중심의 특성이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인 성향을 보여 비합리적인 사고 중심인 반면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는 합리적인 신념에 가깝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6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 분석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R값이 .729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Self-esteem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Tolerance	VIF
Constant	5.177	.261		19.867	.000		
Goal instability	-.387	.106	-.276	-3.636	.000***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424	.096	.297	4.423	.000***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178	.093	.128	1.923	.056	.507	1.972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638	.114	-.583	-5.609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278	.118	-.196	-2.360	.019*	.326	3.070

R=.729, R²=.532, Modified R²=.521, Dubin-Watson=1.739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전체 설명력은 53.2%며 Dubin-Watson 계수도 1.739로 회귀분석이 가능한 정상분포에 근접한다. 자존감에 대한 영향력은 착취/자기중심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 순은 과민/취약성($\beta=-.583, p<.001$),

인정욕구/거대자기($\beta=.297, p<.001$), 목표 불안정($\beta=-.276, p<.001$), 소심/자신감 부족($\beta=-.196, p<.05$)이다. 선행 연구[7]에서 착취/자기중심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기혼여성이 대상인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정욕구/거대자기 요인은 자존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는 거대자기 환상으로 열등감을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 발현하는 조건부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반응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7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20]의 3 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표준화 계수인 베타(β) 값의 차이 비교로 매개효과를 판단하였다. 즉, 독립변인 단독으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베타 값과 종속변인에 매개변인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베타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매개효과의 유무를 판별하였다. 1단계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Table 9에 이미 제시하였고, 2단계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Table 6~9와 동일하다. 3단계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에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12와 같다.

Table 10.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others blame and Reveng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Tolerance	VIF
Constant	1.624	.438		3.706	.000		
Goal instability	-.053	.108	-.035	-.484	.629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272	.099	.178	2.739	.007**	.454	2.202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18	.092	.079	1.271	.205	.498	2.007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619	.121	.529	5.131	.000***	.180	5.543
Timidity/Lack of confidence	-.299	.118	-.197	-2.531	.012*	.317	3.152
Self-esteem	-.355	.068	-.332	-5.190	.000***	.468	2.136

R=.776, R²=.602, Modified R²=.590, Dubin-Watson=1.681

Table 11.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helplessness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Tolerance	VIF
Constant	2.491	.406		6.141	.000		
Goal instability	-.027	.100	-.016	-.270	.788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227	.092	.133	2.466	.014*	.454	2.202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13	.086	-.068	-1.315	.190	.498	2.007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600	.112	.461	5.375	.000***	.180	5.543
Timidity/Lack of confidence	-.109	.109	-.064	-.996	.320	.317	3.152
Self-esteem	-.588	.063	-.494	-9.278	.000***	.468	2.136

R=.851, R²=.725, Modified R²=.717, Dubin-Watson=1.785

Table 12.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Non-standa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Tolerance	VIF
Constant	1.441	.430		3.349	.001		
Goal instability	.127	.107	.089	1.196	.233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359	.097	.246	3.682	.000***	.454	2.202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351	.091	-.247	-3.869	.000***	.498	2.007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455	.118	.407	3.839	.000***	.180	5.543
Timidity/Lack of confidence	.049	.116	.034	.420	.675	.317	3.152
Self-esteem	-.272	.067	-.266	-4.045	.000***	.468	2.136

R=.760, R²=.578, Modified R²=.565, Dubin-Watson=1.639

1단계 매개효과 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된 요인은 목표 불안정($\beta=-.276$),

인정욕구/거대자기($\beta=.297$), 과민/취약성($\beta=-.583$), 소심/자신감 부족($\beta=-.196$) 4개 요인이며, 이 가운데 2단계 분석 조건을 만족한 요인은 과민/취약성($\beta=.722$) 요인뿐이다. 3단계 분석에서 과민/취약성($\beta=.529$) 요인은 자존감($\beta=-.332$)과 함께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고,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β) 비교에서 매개변인이 포함된 3단계보다 2단계가 커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소벨테스트(Sobel-test)로 확인한 결과 $Z=3.817(p<.001)$ 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인 타인 비난 및 보복 간의 영향 경로에서 자존감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Table 11에서 과민/취약성은 타인 비난 및 보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1, 2, 3단계 분석 조건을 모두 만족한 요인이며, 베타 값이 3단계($\beta=.461$)보다 2단계($\beta=.722$)가 크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소벨테스트에서도 $Z=4.800(p<.001)$ 으로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과민/취약성이 매개변인인 자존감을 통해 무력감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존감이 과민/취약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1단계와 3단계 분석에서 자존감은 두 요인과 모두 역반응을 보여 자존감의 영향력이 커지면 과민/취약성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able 12에서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자존감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1, 2단계를 모두 만족한 요인이 과민/취약성과 인정욕구/거대자기, 목표 불안정 3개 요인으로 과민/취약성의 베타 값 변화를 보면, 2단계($\beta=.563$)가 3단계($\beta=.461$)보다 커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인정욕구/거대자기는 2단계($\beta=.167$)가 3단계($\beta=.246$)보다 작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표 불안정의 경우에는 베타 값이 2단계($\beta=.163$)가 3단계($\beta=.089$)보다 크며 3단계에서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민/취약성, 목표 불안정 두 요인에서 확인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소벨테스트 한 결과 과민/취약성 $Z=3.286(p<.001)$, 목표 불안정 $Z=2.715(p<.001)$ 로 모두 유의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목표 불안정과 과민/취약성 2개 요인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 자존감의 상관성과 함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력과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타인 비난/보복, 무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와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과민/취약성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들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자존감과 상관분석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 상관성을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은 자기 삶이 불행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보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7]. 이는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함 등이 반영된 자기개념에 속한다. 이러한 과민/취약성 요인이 이차적 분노사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omas와 Smucker[21]는 여성의 분노는 부모, 남편, 자녀, 친구 등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주된 요인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기혼여성은 남편과 자녀 등 가족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관계 유지가 삶의 가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 반응은 분노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6].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존감과 높은 역 상관성 또한 자기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족과의 관계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과민/취약성은 이차적 분노사고 3개 하위요인에 유일하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무력감 요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애 속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분노사고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확인된다[8,22-30]. 또한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이차적 분노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1]. 이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 표출과 억제 심리도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32,33]는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과의 영향 관계를 더욱 뒷받침한다.

내현적 자기애는 기존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활발하다[34,35].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문화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관점이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확산 현상이 이러한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14].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생활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부부관계는 그 중심에 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노 경험 과정에 관한 연구[36]에서 무시당함과 모멸감, 소외감, 서운함이 주요 원인적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의 속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과 관계성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이 이차적 분노사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력감 요인은 분노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무기력해 하는 수동적인 반응으로,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기혼여성의 분노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35-37]에서 공통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들 연구에서는 무력감이 회의와 허무감, 혼자 참고 억누름, 실망감, 자기 비하 등으로 제시된다.

또한 자존감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과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과의 무력감이 자존감과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4,7]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무력감 사고 경향이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5]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기혼여성의 이차적 분노사과와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 요인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이 이차적 분노사과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기혼여성 중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한 여성은 분노상황에서 무력감을 보이고 수동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자존감은 분노상황에서 지각하는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자존감이 열등감을 감추려는 방어기제로써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일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8]. 연구 결과에 따른 치료적 함의를 논의하면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분노사과는 과민/취약성 요인과 무력감 요인이 두드러진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원인 분석과 무력감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간추려 보면 첫째, 내현적 자기애가 기혼여성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를 진단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자기개념에 속한 과민/취약성은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기혼여성에게 적용할 만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더욱이 기혼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나타날 경우, 어떠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지는 내현적 자기애가 기혼여성의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데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38]. 특히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8,39].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특징으로 제시한 과민/취약성은 그 속성상 기혼여성의 가치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로는 기혼여성의 이차적 분노사과가 내현적 자기애와의 반응에서 다른 특성에 비해 무력감 요인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분노사과의 타인 비난/보복, 무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3가지 요인 중 무력감이 내현적 자기애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은 분노상황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 사고로 언어적인 분노 표현이나 행동적인 분노 표현을 억제하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의, 억누름, 허무감 등 기혼여성의 분노 경험에서 발견되는 반응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35-37].

세 번째로는 본 연구가 분노사과 또는 분노 표현 등 분노 경험과 개인 성격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개인의 성격이 분노나 폭력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또한 과거부터 시도되었던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40-43]에서부터 긴장과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심리와의 관계[44-46] 등 연구의 외현이 넓어지고 있어 본 연구가 기혼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내현적 자기애의 병리적 반응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J. L. Deffenbacher, M. McKay,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A protocol for the treatment of anger based on relaxation, cognitive restructuring, and coping skills training. Oakland, New Harbinger, 2000, pp.176.
- [2] R. S. Lazarus,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217-295.
- [3] A. T. Beck, J. L. Deffenbacher,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pp.368, Perennial, 2000, pp.125-169.
DOI: <https://doi.org/10.1891/0889-8391.14.2.201>
- [4] S. G. Seo, *Cognitive factors related to anger and their therapeutic implication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118, 2004.
- [5] S. G. Seo, S. M. Kw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anger thought Scale: Primary/Secondary anger-though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4, No.1, pp.187-206, Feb. 2005.
- [6] Y. M., Lee, *lived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women's anger*,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1-97, 2002.
- [7] S. H. Kang, N.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14, No.4, pp.969-990, Nov, 2002.
- [8] S. M. Kwon, S. J. Ha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Trap of Too Much Self-Love, pp.192, Seoul, Korea, Hakjisa, 2000, pp.192.
- [9] S. Y. Park, *A Structure Analysis on Self-Regulatory Model of Individuals of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1-44, 2013.
- [10] K. A. Dickinson, A. I. Pincus,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17, pp.188-207, Jun, 2003.
DOI: <https://doi.org/10.1521/pepi.17.3.188.22146>
- [11] B. J. Jon,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Vol.11, No.1, pp.107-130, Mar, 1974.
- [12] H. K. .Koo, J. N. Kim,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2, pp.609-636, 2014.
DOI: <http://doi.org/10.15703/kjc.15.2.201404.609>
- [13] I. S. Lee, H. L. Choi,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3, pp.651-670, Aug, 2005.
- [14] R. A. Emmons,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8, pp.291-300, Jun, 1984.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ipa4803_11
- [15] 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pp.361, Aronson, 1975, pp.263-314.
- [16] A. H. Buss, M. Perry,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3, pp.452-459, Sep, 1992.
- [17] M. H. Kernis, B. D. Grannemann, L. C. Barclay,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6, No.6, pp.1013-1022, Jun, 1989.
DOI: <https://doi.apa.org/doi/10.1037/0022-3514.56.6.1013>
- [18] S. Akhtar,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Jan, 1982.
DOI: <https://doi.org/10.1176/ajp.139.1.12>
- [19] M. Rosenberg,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Database record]. APA PsyTests.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t01038-000>
- [20]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Dec, 1986.
- [21] S. Thomas, C. Smucker, "It Hurts Most around the Heart : A Phenomenological Exploration of Women's Ang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8, No.2, pp.311-322, Dec, 1998.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8.00785.x>
- [22] J. S. Kim, *Effects of success-failure feedback on negative affects, self-esteem, and ability attribution of over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1-64, 2008.
- [23] S. R. Park, *Self-evaluation and attributional style of overt-covert narcissis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1-96, 2004.
- [24] R. Y. Ba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the Mediation Effect of Forgiveness*,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pp.1-43, 2016.
- [25] S. H. Baek,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of overt, covert narcissists*, Master'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59, 2005.
- [26] H. J. Wee,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 mediated by anger expression*, Duk 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80, 2008.
- [27] J. D. Lee, H. J. Lee, S. G. Seo,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Young Adults with Covert-Overt Narcissistic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6, no.2, pp.463-477, Feb, 2007.

- [28] D. J. Shin, N. W. Chung, "Covert Narcissis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ody Cathexis on Binge Drive for Thinnes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2, no.1, pp.77-94, Dec, 2007.
DOI: <http://doi.org/10.17315/kjhp.2007.12.1.005>
- [29] O. F.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2018, pp.361.
DOI: <https://doi.org/10.1192/S0007125000016214>
- [30] J. T. McCann, M. K. Biaggio,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Vol.64, No.1, pp.55-58, Feb, 1989.
DOI: <https://doi.org/10.2466/pr0.1989.64.1.55>
- [31] J. W. Kim, J. H. Chung,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Belief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condary Anger-Thought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Vol.25, No.2, pp.273-297, 2017.
DOI: <http://doi.org/10.35151/kyci.2017.25.2.013>
- [32] S.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nd maladaptive anger ex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1-70, 2013.
- [33] S. H. So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out, in the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and anger-i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1-76, 2015.
- [34] J. F. Materson, A developmental, self, and object relation theory, in *The Emerging Self*, pp.12-25, New York: Brunner/Mazel, 1993.
DOI: <https://doi.org/10.4324/9781315825786-3>
- [35] E. J. Khantzian, ,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5, pp.754.
DOI: <https://doi.org/10.1176/aip.155.1.145>
- [36] H. J. Oh, *A qualitative study of anger experience processes in married women*, Masters'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1-110, 2007.
- [37] K. M. Hong, *Christian Counseling Method to Middle-aged Women's Anger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Ph.D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pp.1-219, 2011.
- [38] S. O. Kim, J. H. Han,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perienced by Married Woman with Narcissistic Trai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4, pp.1877-1893, Nov, 2010.
DOI: <http://doi.org/10.15703/kic.11.4.201012.1877>
- [39] W. J. Kim, *Relations among narcissism, empathy, elf-esteem and conflict coping styles of the marri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p.1-78, 2011.
- [40] P. L. Hewitt, G. L. Flett,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0, No.3, pp.456-470, 1991.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60.3.456>
- [41] S. M. Kang, H. K. Lim, "The Impact of Overprotection and Parentification on Covert Narcissism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4, pp.53-78, Apr, 2012.
- [42] S. R. Lee, H. I. Chang,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as Sequential Mediat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7, No.2, pp.313-332, Feb, 2022.
DOI: <http://doi.org/10.17315/kjhp.2022.27.2.008>
- [43] I. S. Choi, H. N. Choi,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5, pp.2799-2815, May, 2013.
DOI: <http://doi.org/10.15703/kic.14.5.201310.2799>
- [44] J. H. Kim, W. J. Jeong, S. C. Jung, "Mediation Effect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Avoidance Motiv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Organizational Silence".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ol.4, No.1, pp.67-86, Jun, 2021.
DOI: <http://doi.org/10.22788/4.1.5>
- [45] J. H. Ha, B. Y. Heo, Y. W. Kang, U. H. Song,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areer Indeci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Independence on the Subscal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1, No.3, pp.683-701, Aug, 2009.
- [46] Y.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epress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through Depressive Rumin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7, No.12, pp.457-480, Dec, 2020.
DOI: <http://doi.org/10.21509/KJYS.2020.12.27.12.457>

최 재 훈(Jae Hoon Choi)

[정회원]



- 2013년 9월 : 대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18년 12월 :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박사)
- 2000년 2월 ~ 현재 : 경인일보 편집국 지역사회부 부장
- 2021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관심 분야>

스트레스, 분노사고, 심리적 안녕감, 심리치료 상담

김 경 운(Kyeong Uoon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08년 1월 :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간호학 박사후
- 2016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 간호학, 스트레스 관리, 이미지메이킹